

금융커먼즈의 조성을 위한 국내 대안금융 생태계의 탐색

2023-12-02

발표: 정진영

보고서 원문: 빈연구소 홍다솜·정진영 작성

본 발표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소액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금융커먼즈의 조성을 위한 국내 대안금융 생태계의 탐색(홍다솜·정진영)'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연구의 배경

0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0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맷기

1. 연구의 배경

연구 질문: 금융 커먼즈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대안 금융 실험들은 어떠한 금융 구조, 관행, 지식을 만드는가?

본 연구는 다양한 금융 실험들에서 나타나는 대안적인 금융 구조, 관행, 지식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안적인 금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자 함

대안 금융 실험들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어떻게 관계맺는가?

금융의 커먼즈화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사회경제적 시스템 및 행위자와 경합 및 상호작용 해나가는 과정임(Bollier & Conaty, 2015). 이에 본 연구는 대안적인 금융 실험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살피고자 함

1. 연구의 배경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대안 금융 실험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의 인터뷰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하였으며, 조합원 총회 자료, 신문기사 등을 포함한 각종 문헌연구를 활용함

대안금융 공동체	공동체 특성	금융 제공 대상	인터뷰 일자
건맥1897 협동조합	지역자산화운동	구성원	2022.07.19
공유성북 원탁회의	지역문화생태계 및 거버넌스	구성원	2022.07.25
사람과 공간	지역자산화운동	구성원	2022.08.03
해빗투게더	지역자산화운동	구성원	2022.08.04
(사) 연구자의 집	연구자 및 지식 커먼즈운동	구성원	집담회 참여
터무늬 제작소	청년주택지원금융	타공동체	2022.08.22
희년은행	희년함께 무이자은행	구성원 / 타공동체	2022.08.11
공동체은행 빈고	탈자본 공동체은행	구성원 / 타공동체	-
한살림연대기금	한살림생산자지원금융	구성원 / 타공동체	2022.08.05
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자공제조합	구성원 / 타공동체	2022.08.11.
도토리회	홍동면 무이자은행 및 지역화폐운동	구성원	2022.08.18
다람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및 지역노동자 경제공동체	구성원	2022.08.19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지역화폐 및 지역은행	구성원	2022.08.24
주민협동연합회	지역자활조합연합회	타공동체	집담회 참여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2.1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2.1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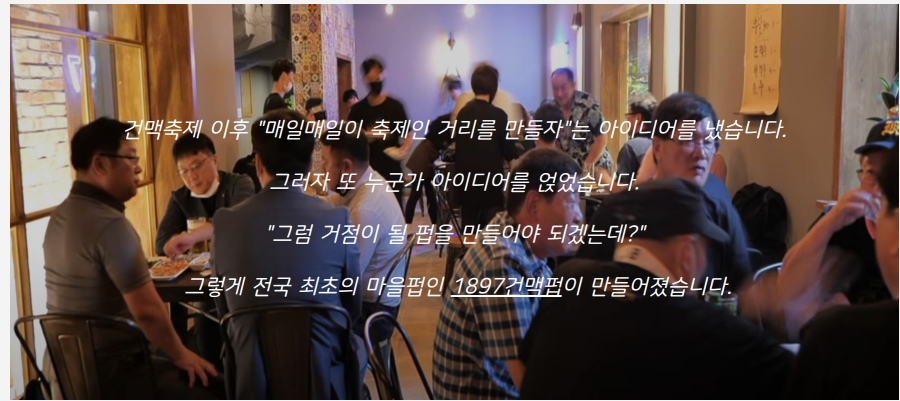
2.2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와 거버넌스

공동체 공간 조성 과정에서의 금융 실천

- 건맥 1897 협동조합, 해빛투게더, 사람과 공간, 공유성북원탁회의(이하 공유 성북)은 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 및 시민 운동을 전개함. 활동의 중심이자 공동의 자원이 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자산화 운동, 금융기관 대출, 정책 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금융 채널을 조합하여 자금을 마련함. 이때 금융은 단순히 공간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국한되지 않음. 지향에 따라 각 단체들은 자금 조달 방식을 달리하며, 그 과정 속에서 공간·관계·자본·금융의 의미를 전유하고 재구성함
- 공동체은행 빈고, 터무늬 제작소, 희년은행 또한 금융을 활용하여 공동의 공간 자산을 조성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 실험을 통해 제도권의 금융 논리를 전유 하고자 시도함. 이 과정에서 금융과 공간의 커머닝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확장하였으며, 지역운동 등 또 다른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함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공동체 공간 조성 과정에서의 금융 실천: 건맥 1879 협동조합



출처: 건맥 1897 홈페이지(https://pub1897.imweb.me/pub_intro)

“자산화라고 하는 것이 자본을 가지고 자산을 확보하는 일이니까, 그 자본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낸 자산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본의 성격에 의해서 활동의 내용이 굉장히 규정이 많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부 자본을 고금리로 많이 끌어와서 자산을 확보하면, 그 고금리와 원리금을 빠르게 상환해 내야 하기 위해서 자산을 공익적으로만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중략)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조달하는 자본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산화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자본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금융이나 인내 자본을 조금이라도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했죠. (중략) 저희는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로 토대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사회적인 프로젝트에 자본들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자본의 성격, 조달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꿔 가는데 건맥1897 협동조합도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공동체 공간 조성 과정에서의 금융 실천: 사람과 공간

“자산화 개념은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자산화 개념을 쓰지 않았고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임대하는 것보다는 매입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하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에 이런 개념이 있고 커먼즈 운동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국공유라고 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의 공유. 말 그대로 공동의 소유 방식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고민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사람과 공간, 2022년 8월 3일 인터뷰



출처: 직접 촬영(2022. 8. 3)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공동체 공간 조성 과정에서의 금융 실천: 공동체 은행 빈고

- 공동체은행 빈고는 빈집이라는 공동체 공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공동체은행으로 발전함
 - 빈집 → 빈마을 → 우주살림 협동조합 빈고 → 공동체은행 빈고

“돈 가진 것이 자랑이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돈에서 비롯된 수입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유의 실천이 빈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독특하고 기발하고 정의롭고 유쾌하기 그지없는 살림살이의 방법을 자랑해도 좋을 것입니다. 집 문턱을 넘어서 마을로, 세상으로 넓혀가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삶을 희생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모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돈, 원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소비로 하염없이 빼앗기고 말았던 돈,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며 대부분은 손해로 귀결되는 투자에 사용되던 돈, 불안하고 위험한 미래를 홀로 외롭게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돈, 은행을 통해서 환경과 생명과 노동을 파괴하는 돈의 순환에 말려들어갔던 우리의 돈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 (빈마을금고) 취지문 중).”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시민/지역운동과 대안 금융의 활용

- 한살림, 풀빵, 도토리회, 다람쥐회, 모아 등은 시민운동 혹은 지역운동의 과정에서 대안적인 금융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형성함
- 이때 대안금융 생태계의 형성은 단순히 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그 자체가 운동의 주요한 실천으로 자리잡음
- 대안금융 생태계의 조성은 노동자를 조직하고, 지역 관계망을 구축하는 등의 실천으로 이어짐. 대안금융과 시민·지역운동의 생태계는 상호 긴밀히 얽혀 서로를 지탱하고 구성하는 것임

2.1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2.2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와 거버넌스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시민/지역운동과 대안 금융의 활용: 노동공제회 풀빵

2.1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2.2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와 거버넌스

- 노동공제회 풀빵은 노동자의 삶의 필요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동조합 노동자를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을 선택함. 풀빵은 금융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 운동을 실천하고자 함

“노동조합은 어떤 특정 시기 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 단결이 이제 극대화되는데요. 공제는 반대로 일상의 어떤 연대, 일상의 단결, 혹은 자조 이런 것들. 이게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거죠. 노동조합이 공제를 탑재했을 때. (중략)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의 어떤 연대 상호 부조를 하면서, 특정 어떤 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 힘이 뿔어져 나오는. 그래서 노동조합과 공제가 만났을 때에는 굉장한 시너지가.”

- 노동공제회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시민/지역운동과 대안 금융의 활용: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는 마포구의 관계망에 기반하여 공동체 경제를 형성하며, 모아가 실천하는 소비 운동 및 공동체 은행 운동 등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함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소비 운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공동체는 갑자기 2015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지역에 해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같이 싸우면서, 혹은 무언가를 만들면서 해왔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적극적인 관계적 소비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모아를 만들면서 소비 운동을 제안한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또 마포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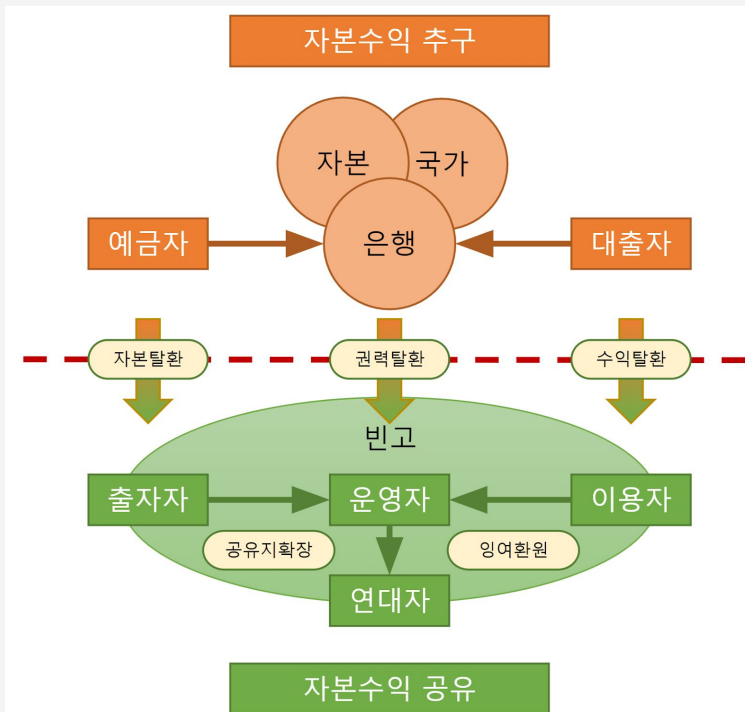
- 마포 경제공동체 모아, 2022년 8월 24일 인터뷰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2.2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와 거버넌스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



출처: 공동체은행 빈고 홈페이지(<https://bingobank.org/>)

2.1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2.2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와 거버넌스

- 대안금융 단체는 금융 주체 · 논리 · 수단 · 관행을 창조함으로써 기존 금융의 구조를 재구성함
- 한 예로 빈고는 기존 은행 시스템의 예금 · 대출 · 이사회 · 주주 등의 핵심 요소를 차용하지만 그 의미를 재구성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

- 대출의 기준과 절차도 제도권 금융기관과 상이함.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이나 담보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나, 대안금융 공동체는 대출자의 필요나 상황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함
- 채권 추심 또한 상담과 소통의 형태로 진행됨

“(질문: 그러면 대출에 대한 추심도 하시나요?) 예예. 일반적인 어떤 제도권에서 하는 그런 추심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상황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은 갖죠.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상환 계획을 가지시는지. 최근에 들어서는 계획서까지 좀 제출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까지 갚는다 하지만 그게 연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연체라도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인가.”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2.1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2.2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와 거버넌스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

- 대출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대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함
- 예를 들어 한살림 연대기금(이하 한살림)은 원물 및 동산담보 인정이 되지 않아 농번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생산자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시도함. 한살림은 현재의 금융기관과 제도가 생산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포괄 담보를 도입하여 생산자들의 신용을 새로이 평가하고자 함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 건 다 인정해 주는데. 시설이나 설비 같은 거 지적 재산권은 담보로 인정할 수 있겠는데, 농작물 같이 가격 변동 심하고 유동성이 있는 이런 것은 은행들이 아직 (담보로 인정해주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담보로 잡는 게 매출, 채권, 그리고 동산담보, 원물. 그런 부분 다 포괄해서 일단 하고 있고. 원리는 처음에 인정가액이 예를 들면 원물만 많이 한 100이 있으면 원물이 줄어들고, 그게 매출로 팔리잖아요. 그걸 비율을 이제 점점 더 맞춰가지고 100으로 만기까지 가죠. 매출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한살림의 ERP가 있으니까 매출이 다 잡혀요. 그거 보고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 원물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구나. 그러면 만기까지 그거를 그냥 수익 가치로 보고 포괄 담보를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대안금융 단체의 거버넌스

- 대안금융 단체는 비교적 유연한 운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음. 대안금융 단체들은 비영리 사단법인,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대부업 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활동함.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 금융체계의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 등에 의한 결과임
- 이러한 법적 조직은 유연하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여지를 제공하기도 함

“둘 다 임의 단체입니다. (중략)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나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법적인 어떤 제약을 거의 덜 받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 대한 혜택도 없고 어쨌든 임의 단체는 정식 법인적이 아니라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기도 하죠. 저희가 활동하기에는. 뭔가에 대신에 또 그만큼 공신력이랄까, 법인격을 안 갖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너무 약간의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임의 단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조금 더 이게 운영적 측면에서는 느슨할 수도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2.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지형도

대안금융 단체의 거버넌스

- 그러나 법적, 제도적 지위 확보의 어려움 및 금융 제도의 높은 진입장벽은 대안금융의 확장과 운영에 난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그때 금융 사고가 많이 나면서 「금융소비자법」이 만들어졌어요. (중략) 우리가 이제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히는 거야. (중략)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똑같이 은행에 라인을 정기 예금 가입하듯이 해서, 내가 그냥 편하게 여기 이제 이 돈을 넣고, 우리는 이제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목적에 이제 쓰게끔 설명하고 약정을 맺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홍보도 못해. 이걸 갖다 쓰는 것도 일일이 예금 가입자한테 동의서 이걸 다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니까 캠페인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략)

터무니 있는 소셜 예금도 어쨌든 제도권 금융기관 그래도 실험하고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다가, 결국은 지금 또 재단이 직접 출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중략) 실제 지금 이제 금융 자체가 제도권 금융 중심으로 체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시민사회에서 이제 뭔가 이제 좀 대안적인 시도를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이제 공식화하고 뭔가를 좀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기존 법제도가 쉽지 않게끔 돼 있더라고요.**”

2.1 대안금융 단체의 지향점 및 형성 과정

2.2 대안금융 단체의 금융구조와 거버넌스



출처: 터무니있는 집 홈페이지
(<https://themuni.co.kr>)

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맺기

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맺기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3.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3.2 지역과 관계 맺기

3.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 대안금융 단체들은 기존의 금융 체계 및 제도, 지역 및 공동체, 다른 대안금융 생태계와 다양한 관계를 맺음
- 기존의 금융 체계 및 제도와와의 관계 맺기는 대안금융 단체들이 성장하는 동력이 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 관행에 변화를 만들기도 함. 그러나 이는 종종 현행 법 및 행정 체계에 의해 가로막힘

“SH 하고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였죠. 소득분위 조사하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모집하는 거다. 우리한테는 그게 두 개가 가장 중요했고, SH가 그걸 수용했고 해서 이렇게 협업(하는) 사이(가) 된 거지요. (중략) 그냥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에 좋은 적합한 단체라고 하면 입주자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랑 같이 터무늬는 희망아지트 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지키려 했죠. SH나 이런 공공에서 하는 청년주택 같은 데 중에 아마 소득 심사가 없는 주택은 아마 저희 서울 희망 아지트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 터무늬 제작소, 2022년 8월 22일 인터뷰

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맺기

지역과 관계 맺기

- 대안금융 단체들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맺으며 지역에 뿌리내림
- 예컨대 다람쥐회는 1958년 영등포 경공업단지에 설립된 영등포산업선교회 내의 하위 공동체로 시작하였고, 현재도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한 예로 다람쥐회는 영등포역 인근의 노숙인 임시 주거 공간인 ‘햇살보금자리 드롭인센터(Drop In Center)’ 노숙인들이 자립을 위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을 만들
 - 이는 지역 공동체의 실천을 확장시킴. 드롭인센터 자체적으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하기 어려웠으나, 다람쥐회와의 연대를 통해 금융을 활용한 실천을 할 수 있게 됨

3.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3.2 지역과 관계 맺기

3.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맺기

지역과 관계 맺기

- 도토리회 또한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대안금융 생태계와 지역화폐 운동의 확산을 도모해 나감
- 도토리회의 운영과 지역화폐 ‘잎’의 발행은 흥동면의 선주민이 아닌, 새로이 귀촌한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 그런데 지역의 상점들에서 ‘잎’을 사용하게 되면서 선주민들 또한 지역 화폐 운동에 동참하게 됨
- 나아가 도토리회는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학교 축제에서 ‘잎’을 사용하게 하는 등,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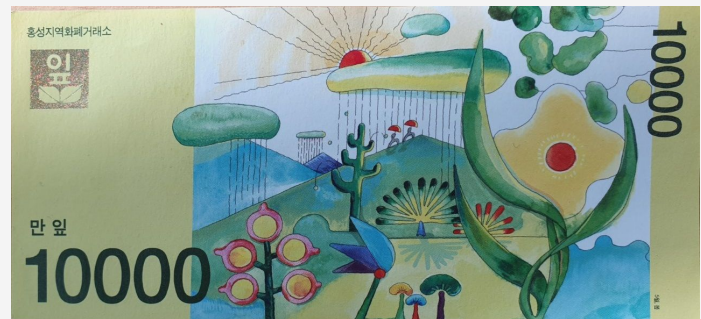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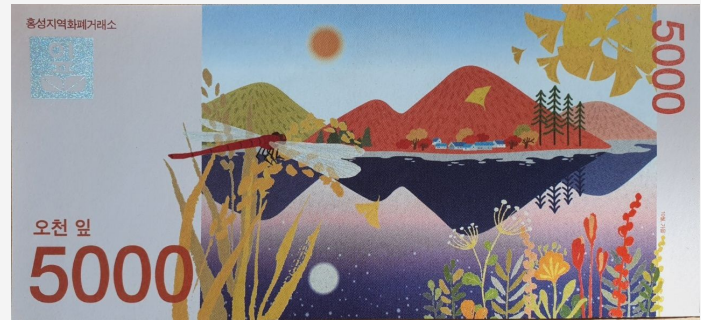
“여기 저희 이제 마실 통신이라고 마을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마을 기자로 만약에 이렇게 글을 좀 보내시면 수고료. 원고료로 이걸 드려요. 이걸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드릴 때 이제 뭐 다른 때 같으면 이게 뭔가?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받으시는 거고.”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3.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3.2 지역과 관계 맺기

3.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맺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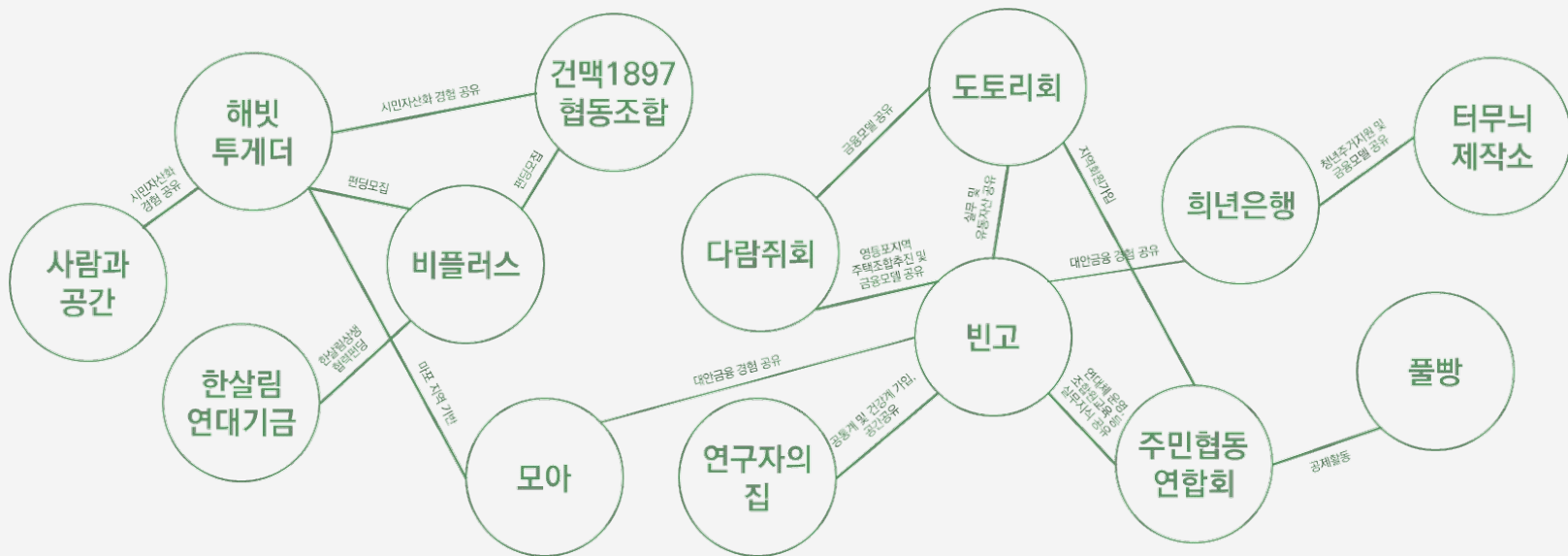
3.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3.2 지역과 관계 맺기

3.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 대안금융 단체들은 서로 다른 공동체와 상호 관계를 맺으며 더 넓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확장해감



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맺기

3.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3.2 지역과 관계 맺기

3.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 리스크 또한 공유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금융 단체들 간에 자본을 공유하는 실천의 중요성은 여러 단체들에 의해 이야기 된 바 있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관계 금융이 좀 약화가 되고. (중략) 도토리의 규모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들이 네트워크로, 자율적으로 수평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금융 조직이면 좋겠다. 이게 하나로 그냥 뭉뚱그러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가 느슨해지잖아요. 어떤 지역은 푹푹 뭉쳐 있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근데 여기로서는 많이 부족하니 이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들이 서로 지탱해 주는 방식.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출 사고같은 것들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있는 돈 주머니를 같이 잘 연결하자는 거죠. (중략) 전체 다가 아니라 일부 천만 원은 우리 공동 주머니에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당장 돈이 없을 때 이쪽에 있는 기금을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중략) 이런 공동 주머니가 안전망?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도토리회, 2022년 8월 18일 인터뷰

3. 국내 대안금융 단체의 관계 맺기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3.1 금융 체계 및 제도와 관계 맺기

3.2 지역과 관계 맺기

3.3 대안금융 생태계 간 관계 맺기

“한 집단이 관계성이 확인될 정도 수준의 최대치가 한 4~500명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관계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한 3~500명 정도 되는 이 사이즈의 여러 단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데 그럴 역량들은 좀 부족한 거죠. 왜냐면 본인들 거 하기 바쁘니까. (중략) 그러니까 작은 단위 조직들이 커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조직들의 확대. (중략) 이렇게 네트워크형의 구성을 짜게 하는 게 저의 최근 결론이거든요. 작은 조직들을 많이 만들고, 다만 그 작은 조직들이 독자적으로 뭔가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묶어내는 연대체를, 네트워크 조직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네트워크 조직에 기능과 역할들을 부여하고. 그러면 이게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 노동공제회 풀빵, 2022년 8월 11일 인터뷰

참고문헌

공동체은행 빈고 홈페이지. <https://bingobank.org/> (최종접속일: 2022.12.10)

공유성북원탁회의. (2020). *문화와 예술, 마을을 만나다*. 민들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서향교회·온누리교회·사회선교부경제정의팀·예수마을교회·희년함께.(2018년 11월 22일). *청년부채해방, 현실 속에서 희년의 길을 찾다*, 토론회 자료집.

나상윤 외. (2019). *로컬의 오늘*. 이매진.

문진수. (2013). 해외 사회적금융 사례로 본 신탁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방안 연구-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탁연구, 61.

문진수. (2021년 7월 1일). 내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다면? *한겨레*. 2022년 10월 1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1739.html

민병길·이상민. (2015).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정책연구, 2015-38, 1-95.

박종찬. (2022년 7월 26일). [기후금융시리즈] ⑤ 한살림 대안신용평가 적용사례로 본 금융포용의 대안적 방안 모색. *생태적 지혜*. 2022년 8월 5일 검색, <https://ecosophialab.com/>

사회투자지원재단. (2021년 9월 1일). 터무니없는 희망아지트, 청년주거문제 해결의 새로운 민관협업 모델, 2022년 9월 5일 검색, <https://ksif.kr/tag/%ED%84%B0%EB%AC%B4%FB%8A%AC%EC%A0%9C%EC%9F%91%EC%86%8C/>

웹진 공유도시. (2021). 공유, 자치, 현대의 공간, 빈집과 빈방 이야기. *웹진 공유도시, 2021년 7월호*, <https://commonscity.com/> (최종접속일: 2022.11.29).

이동근. (2021). 홍성군 흥동면의 민간주도 지역화페운동의 의미. *민위방본*, 81, 1-10.

이원표. (2016년 12월 8일). 신탁·소비자협동조합,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모 [몬드라곤②] 라보랄콤파차, 에로스키. *레디앙*. 2022년 10월 3일 검색, <http://www.redian.org/archive/105908>

이재환. (2019년 4월 19일). 지역화폐 '임' 활성화, 농협에서 사용 가능. *홍주일보*. 2022년 9월 7일 검색, <http://www.hi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63>

이정민·노태석. (2018).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은행법연구*, 11(1), 29-57.

이종익. (2022년 1월 7일). ESG금융의 조건-독일 GLS 은행의 사례를 바탕으로. *EBN 산업경제*. 2022년 11월 1일 검색, <https://m.ebn.co.kr/news/view/1515199>

임영주. (2005년 10월 12일). 이자는 환경보호에 써주시오. *경향신문*. 2022년 11월 14일 검색, 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0510121741271

지음. (2013). 공유, 자치, 현대를 실천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 빈집, 빈가게, 빈고 -빈마을 이야기. *도시와 빈곤*, 102, 62-76.

피에르-올리비에 마유. (2021). *데자르맹 연대경제금고의 역사, 존재의 열정*. 착한책가게.

해빗투게더 클라우드 펀딩 페이지. <https://www.ohmycompany.com/reward/7843> (최종접속일: 2022.12.10)

희년함께 홈페이지. <http://landliberty.org/> (최종접속일: 2022.12.10)

Banka Etica 홈페이지. <https://www.bancaetica.it/about-us/> (최종접속일: 2022.12.10)

GLS 은행 홈페이지. <https://www.gls.de/privatkunden/warum-gls-bank/wo-wirkt-mein-geld/wohnen/mietshaeuser-syndikat/> (최종접속일: 2022.12.10)